

광주, 축제도시로 거듭난다... 첫 1000만 관광객 도전

지난해 840만명 방문...관광객 전년비 86.7%·관광소비 14.5% 증가 올 시즌별 축제 홍보·지역관광 스토리 발굴 주력...체험 상품 개발도

광주시가 올해 첫 1000만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시즌별 대표 축제를 확대하고, 무등산국립공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 스토리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80% 넘게 증가한 총 840여만명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1000만명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잠정 집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립5·18민

주요지 등 방문객을 합산한 결과, 2022년 총 관광객은 840만 2747명이다. 이는 2021년(449만 9679명) 대비 86.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월별 방문 관광객 수는 10월이 가장 많았으며,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컵페스티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광주세계김치축제' 등 가을 축제·행사를 연계 홍보하고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 '시월광주' 프로젝트 효과 등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립미술관의 경우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린 10~11월 방문객이 4만

7850명으로, 미술관 연간 방문객의 37.9%에 달했으며, 전통문화관의 '무등산립축제', 김치타운의 '광주세계김치축제' 기간에도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다.

장소별 연간 관광객은 무등산국립공원이 209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177만명), 김대중컨벤션센터(89만명)이 뒤를 이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광주 관광소비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광주 관광소비(신용카드 소비액)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94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95.7%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엔데믹 관광 시대에 맞는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가장 먼저 2023년 광주를 '축제의 도시'로 브랜드했다. 올해에는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중장축제&버스킹 월드컵, 광주세계김치축제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와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특히 주요 이벤트를 시기별로 그룹화해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하고, 관광객이 축제 외에도 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히 광주 대표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여행사 대상 비엔날레 방문 인센티브 제공, 연계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팝업스

토어 운영, 관광객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티투어 버스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광주 관광의 4대 축인 영산강, 양림동, 망월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이야기를 입혀 줄 새로운 관광 상품도 마련한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연이어 개최되는 기회의 시기"라며 "다양한 축제·행사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멋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올해를 1000만 관광도시 광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충치 예방하려면 양치는 하루 세번" 6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의료인들이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남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탄력

식품특화단지 사업과 투자심사 통과...함평 스포츠타운은 '재검토'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중앙투자심사에서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사업과 함께 재심사 결정이 났던 '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도 통과됐다.

다만, 함평군이 추진하겠다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검토 판단이 내려졌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도와 6개 시·군이 올린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을 통과시켰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7개 사업은 ▲해남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전남도·425억) ▲여수물

산공원 조성(여수·340억)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순천·295억)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곡성·256억) ▲평택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해남·381억) ▲신안 압해농공단지 조성(신안·796억) ▲스포츠타운 조성(함평·277억) 등이다.

행안부는 이중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뒤 추진할 것을 전제로 통과시켜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탄소중립에듀센터는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4만 9330㎡ 부지에 425억원을 들여 지상 2층(연면적 5000㎡) 규모로 조성되는데, 애초 센터를 찾는 교육생이 연간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의 위상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시·교육시설 및 야외 체험시설을 갖춘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해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설창작·창업·패션...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지원

광주시 15개 과정 운영...17~19세 청소년 150명 21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청소년이 배우거나 활동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를 지역사회배움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여자 150여 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와 학원이 아닌 창업 공간, 미술관, 대학교 등 도시 곳곳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로 배워나가는 주도성 강화 프로젝트다.

고교학점제 대비 지역사회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력,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오는 28일부터 7월22일까지 총 15회(주 1회) 방과 후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소설창작 ▲창업마케팅 ▲조경실습 ▲영화비평 ▲현대미술이해 ▲조류충돌조사 ▲베이킹 ▲역사콘텐츠제작 ▲전시기획 ▲패션윤리 ▲스포츠기획 등 14개의 사전선택형과 정해진 주제가 아닌 참여 청소년이 원하는 주제로 팀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율기획형 '제멋대로 프로젝트'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소설창작'은 비대면 프로젝트로,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젝트는 이강하미술관, 전남대 조경학과, 로컬콘텐츠창업공간, 꼬끼리협동조합, 시소센터,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현장에서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고교 재학생은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동 이력에 기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보고 싶은 광주 거주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17~19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21일까지 온라인(bit.ly/2023청주프린칭)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2-224-0541) 또는 카카오톡 채널(2023청주프)로 문의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인공지능사업단장에 김준하 교수

시장직 인수위원장 출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6일 신임 인공지능사업단장 공개 채용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교수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실행 등을 맡은 조직으로 단장 채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임기는 집적단지 조성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업결과 보고, 정산 업무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면 총 2년 안에서 연장될 수 있다.

기본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1억5000만원으로



광주시 유관 기관·단체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다.

김 교수는 GIST 지구환경공학 전공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1~2차 공모에서 모두

단독 지원했다.

김 교수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연구소 '더 큐브' 소장,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알베르 카뮈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